

삼성전자, 차세대 AI TV 공개... '개인 맞춤형 시대' 선언

언박스&디스커버 2025

대형·이동형 등 주요 키워드 제시
Neo QLED 등 라인업 대폭 확대
영상 시청 넘어 새로운 경험 제공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의 2025년형 TV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개인 맞춤형 TV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 사용자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파악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7일 서울 서초구 '삼성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언박스&디스커버 2025'를 열고 차세대 AI TV 라인업을 공개했다. 주요 키워드는 ▲AI 기반 개인화 ▲대형·이동형 스크린 확대 ▲차별화된 시청 환경이다.

삼성 AI TV는 'AI 홈', 'AI 어시스턴트', 'AI 시청 최적화'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AI 홈'의 '홈 인사이드'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 이력, 실내 환경 등을 분석해 에어컨이



삼성전자 용석우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언박스&디스커버 2025'에서 2025년 TV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나 공기청정기 작동을 자동 제안한다. 'AI 홈'의 '홈 모니터링'은 외출 중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실시간 알림을 보내 준다.

'AI 어시스턴트'는 '실시간 자막 번역'과 시청 중인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 추천 및 출연 배우, 프로그램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클릭 투 서치'를 제공한다. 'AI 시청 최적화' 기능을 통해 저해상도 콘텐츠를 고화질로 업스케일링하고, 디테일, 입체감, 명암비를 향상시키는 '리마스터링' 기능도 장면마다 자동 적용한다.

삼성은 AI TV 라인업을 기존 34개에서 61개 모델로 대폭 늘렸다. OLED는 42~83형, Neo QLED는 100~115형 초대형 모델까지 포함했다. 또 기존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 스탠드를 결합한 '무빙스타일'도 다양한 제품에 적용돼 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터치 인터랙션(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도 업계 최초로 탑재해 약 43cm

거리에서 최대 100형 대화면을 구현한다. 사운드바인 2025년형 'Q시리즈'는 서브우퍼 크기를 기존보다 58% 줄이면서 강력한 저음을 구현한다. 설치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소리를 최적화하는 '컨버터블 사운드바'도 출시됐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매자에게는 최대 300만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와 사운드바, 슬립핏 카메라 등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25년형 Neo QLED 8K 출고가는 최상위 시리즈(QNF990) 기준 ▲98형 5040만원 ▲85형 1620만원이다. Neo QLED 출고가는 QNF95 시리즈 기준 ▲85형 789만원 ▲75형 639만원이다. 115형, 100형 모델은 추후 출시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그룹, 창립 72주년... 도전·실용경영 박차

최태원 회장, 선대 도전정신 계승
공격적 투자 앞세워 재계 2위 성장

SK그룹이 8일 창립 72주년을 맞았다. 지난 1953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닭표' 안감을 개발한 선경직물로 시작한 SK그룹은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워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SK그룹은 올해도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갈 예정이다. 이는 그룹 창립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실용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창립기념일 등 연례행사를 최소화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건 창업회장은 지난 1953년 한국전쟁 후 헛더미 속에서 찾아낸 부품을 재조립해 선경직물을 설립했다. 지난 1955년에는 물에 빨아도 안감이 줄지 않는 '닭표' 안감을 개발해 국내 시장을 장악, 이후 '봉황새 이불감'도 날개 돌친 듯 팔리며 섬유업계에서 이름을 높였다.

선경직물은 국내 최초로 섬유 수출에 성공한 후 지난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최종건 창업회장의 별세 후 최종현 선대 회장은 지난 1980년대에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 1994년에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등을 연이어 인수해 석유·



지난 1967년 아세테이트 공장 기공식에서 최종건 창업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최종현 선대회장(여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이동통신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디지털 이동전화용 상용화해 국내 최대 통신 업체를 키워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 미래 먹거리로 판단되는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재계 2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는 인수 당시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연간 2000억원 대의 적자를 기록한 부실기업이었다. SK 내부에서도 불투명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두고 무리한 투자라며 반대가 심했지만 최 회장은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경영진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이뤄냈다.

2012년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대부

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도 SK는 매년 조 단위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했고, M14와 M16을 비롯한 신규 메모리반도체 공장도 적극 건설했다.

이후 반도체용 특수가스(SK머티리얼즈)와 웨이퍼(SK실트론) 회사를 인수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 반도체 연관제품을 전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인수 10년 만에 매출 4배, 시가 총액 6배 상승하며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선대의 도전과 위기극복 정신으로 SK그룹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

최준용 부사장 "HBM4E 적기 공급할 것"

(SK하이닉스)

"글로벌 HBM 시장 리더십 공고히"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사업기회를 이끄는 최준용 부사장(사진)이 "HBM4 12단 양산은 물론, HBM4E도 적기에 공급해 글로벌 HBM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 부사장은 이날 SK하이닉스 뉴스



룸 인터뷰에서 "고객의 특화된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으로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2년생인 최 부사장은 지난해 말 임원 인사에서 HBM사업기회를 총괄

하는 최연소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모바일 D램 상품기획팀장을 거쳐 HBM 사업 성장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HBM 시장을 선도해온 주역 중 하나다.

HBM사업기획 조직은 제품 기획,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글로벌 고객 전략 마련 등 HBM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최 부사장은 "HBM 시장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최적화된 사업 기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LG전자, 1분기 사상 최대매출 달성

매출 22.7조, 영업이익 1.2조 잠정 공시
인공지능 기반 '질적 성장' 전략 주효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질적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G전자는 7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7447억원, 영업이익 1조259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5.7% 줄었지만 6년 연속 1조원대로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갔다.

LG전자는 이번 실적이 ▲기업간거래(B2B) ▲구독 및 webOS 기반 콘텐츠 등 비(非)하드웨어(Non-HW) ▲소비자직접거래(D2C) 영역의 성장에서 견인됐다고 분석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이어졌고, 빌트인 가전과 부품 외판, 구독형 케어서비스의 확장도 성장을 뒷받침했다.

특히 구독 서비스는 LG전자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구독 사업 매출은 2조원으로 전년 대비 75% 성장했다. 전체 가전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을 넘어 인도,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해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B2B 핵심 분야인 냉난방공조(HVAC) 부문도 상승세였다. 싱가포르 등에

서의 대규모 상업용 수주에 더해, AI 데이터센터용 냉각 솔루션(칠러)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칠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가정용 시장에서는 AI를 탑재한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의 판매 호조로 창원 공장이 조기 풀가동에 들어갔다. HVAC 사업을 전담하는 ES사업본부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H&A(생활가전)사업본부에서 분리돼 독립 운영되고 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올해부터 TV, 노트북, 모니터, 상업용 디스플레이(ID) 사업을 통합 운영하며 webOS 기반 콘텐츠·광고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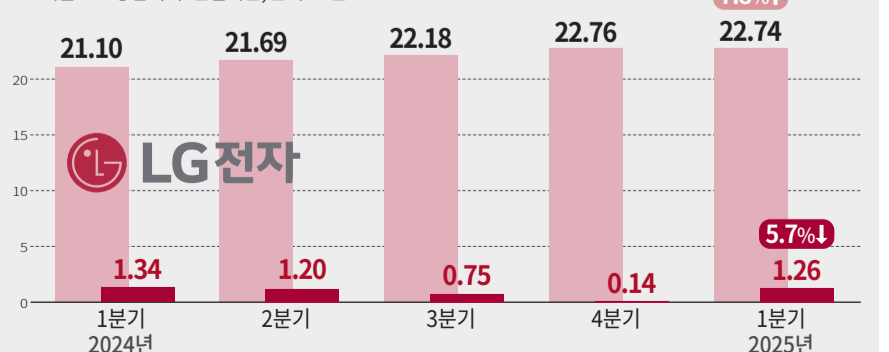
올해 출시한 2025년형 AI TV, 초경량 노트북 'LG 그래프 프로', 이동형 스크린 'LG 스탠바이미2'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상업용 디스플레이 부문도 해외 대형 수주를 이어가며 B2B 기반 성장을 지속 중이다.

전장(VS) 부문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와 콘텐츠 플랫폼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인 모터·인버터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생산 거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차량용 램프 분야는 고해상도, 지능형 제품 개발과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LG전자 실적 추이

■ 매출 ■ 영업이익 연결기준, 단위: 조원



자료/LG전자